“우리는 누구나 연민의 수혜자”

피난 온 소말리아 시민기자 돕는 美불자부부

박정현 객원기자

미국의 불자 부부가 미국으로 피난을 온 소말리아 시민기자를 도운 이야기가 화제다. 그 주인공은 샤론 맥도넬(Sharon McDonnell)과 깁 패리시(Gib Parrish) 부부. 이들은 압디 노어 이프틴(Abdi Nor Iftin)이 국가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올 때 불교의 ‘연민’ 사상을 근거로 재정적 · 정서적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불교 언론 트리사이클(Tricycle)은 지난 9월 20일 샤론과 깁을 비롯해 압디를 도운 불자모임 ‘팀 압디’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소말리아인 압디의 회고록 내용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것은 미국인과 불자 모두에게 자명한 진리와 같다. 미국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고, 불교는 그 영적 틀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불자인 미국인들이 압디를 도운 일에 대한 공통분모를 해석한 것.

보도에 따르면 압디는 ‘인간 기본권’을 찾기 위해 내전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모가디슈로부터 미국 북동쪽 메인(Maine)주(州)로 피난 왔다. 시민기자

모가디슈 내전상황 보도하는
시민기자 압디 노어 이프틴
살해위협 등 받으며 美 피난
샤론 · 깁 부부가 지원 나서

로 활동한 압디는 국가의 불합리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대해 큰 위협을 느꼈다. 그 참혹한 탈출기 속에 부처님 인연으로 이들을 만났다.

샤론과 깁은 우연히 라디오 특집 프로를 통해 압디의 곤경에 대해 듣고 재정적 · 정서적 지원을 시작했다.



미국 불자들이 ‘팀 압디’를 꾸리고 시민기자로 활동 중인 소말리아인 압디 노어 이프틴에게 자비행을 베풀고 있다. 왼쪽부터 레오 호나크, 압디 노어 이프틴, 샤론 맥도넬.

사진출처=트리사이클

압디는 미국에 와 그들을 처음 만난 때를 회상하며 “불상이 마루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나는 누가 부처인지 모르지만 샤론과 그녀의 가족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미국인들이 불교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 가족을 보고 배웠다. 샤론과 깁,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실천하는 불교의 자비희사 사상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연민은 불교 사상의 중심이지만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읽힌다. 실천 이상의 개념인 것. 샤론과 깁은 이 같은 ‘연민’을 압디에게 직접 실천한 것을 두고 “그가 처한 곤경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우리는 버몬트 북부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강의 중이었습니다. 압디는 딕 고든과 함께 공영라디오 방송인 ‘the story’라는 프로그램에 익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어로 말하면서 서양 라디오에서 (소말리아 내전 상황 등을)발설하면 그는 살해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압디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샤론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디가 그 방송 이후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있었다.

샤론은 “소말리아 내에서 외국 언론사가 해산되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상황을 알았다”며 “나는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시민 저널리즘’을 홍보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론은 그 길로 라디오에 편지를 보내 압디를 비롯한 시민기자들을 돕고 싶다고 요청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라디오 관계자들을 통해 압디가 답장을 전한 것이 이들 인연의 시작이다.

샤론은 “나는 그들에게 그저 돈을 보내는 ‘부유한 미국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제공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을 지켜보는 게 즐겁다”며 “실제로 많은 물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웃어 보였다.

사실 샤론은 전적인 불교 신자는 아니다. 프로테스탄트의 한 교파인 퀘이커교도의 일원이다. 하지만 13살 때부터 명상가이자 열렬한 리더로서 불교에 대해 연구하며 불자가 됐다. 그는 스스로를 ‘퀘이커 불자’라고 부른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인 페마 쵸드론과 잭 콘필드는 제게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과학적 관점보다는 경험적 관점에서 영성의 심각성에 대해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연민이 옵니다. ‘팀 압디’는 시민기자들에게 자금을 보내고 그들을 끊임없이 도울 것입니다. 나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연민의 수혜자였을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성 불평등 개선 ‘눈길’

최고학위 ‘게ᄉᆞ’ 받은 비구니 스님들 조명

지난 2016년, 티베트 불교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티베트 불교에서 불교학 박사 내지는 삼장법사를 뜻하는 최고학위인 ‘게ᄉᆞ’를 2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받은 것이다.

인도의 뉴스매체 ‘더 와이어’는 9월 25일 지난 8월 다시 열린 ‘게ᄉᆞ마(여성 게ᄉᆞ)’ 시험의 모습과 그 의의를 특별 보도했다.

게ᄉᆞ는 ‘선지식’이라는 뜻의 티베트어로, 12세기부터 티베트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학위이다. 최소 17년 이상 교학을 수학해야만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총 4단계의 게ᄉᆞ 학위가 있다.

가장 높은 ‘게ᄉᆞc하람빠’ 학위의 경우 평생의 단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고, 엄격한 필기와 토론시험을 거쳐 합격이 결정된다. 하람빠 학위를 받게 되면 본산의 방장과 종정에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현 14대 달라이라마도 게ᄉᆞc하람빠 학위를 가지고 있다.



2012년 게ᄉᆞ마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최초의 게ᄉᆞ마들과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단 이 게ᄉᆞc지위는 지금까지 비구승에게만 주어졌다. 비구니 스님들은 아무리 오랜 기간 교학을 수학해도 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가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며 직접 비구니 게ᄉᆞ인 ‘게ᄉᆞ마’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안, 티베트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한 끝에 최종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게ᄉᆞ마 제도 도입은 티베트 불교계 내에서 남녀출가자의 평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다. 10세기경 티베트에서 비구니 계맥이 끊긴 후, 여성출가자들은 수많은 불평등 속에 지내왔다. 현대에 들어오면서 서구의 여성출가자들은 달라이라마에게 티베트 승단에 비구니 계맥을 복원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러나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승단이 전해오는 근본설일체유부율의 비구니 계맥이 확실치 않아 당장 복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여성출가자들의 권익과 지위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게ᄉᆞ마를 취득한 땐진 꾼쎌 스님은 “티베트에 살고 있는 내 여동생도 출가했지만 교학을 배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며 여성출가자들의 열악한 교육상황을 전했다. 실제 티베트 본토와 히말라야권의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체계적인 교육환경이 여전히 도입되지 않은 채 불평등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1월 보드가야에서 열린 법회에서 “게ᄉᆞ는 티베트 고유의 전통이니 여성출가자들이 게ᄉᆞ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금 법석에 앉아있는 게ᄉᆞ마들은 대중들로부터 마땅히 찬탄 받을 귀중한 분들”이라며 여성출가자들에 대한 교육체계의 확립과 게ᄉᆞ마 제도를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다.

지난 8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다람살라 근교의 ‘잠양 쵤링 비구니 사원’에서 한 번 게ᄉᆞ마 시험이 진행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인도 각지의 강원에서 수학한 46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응시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스님이 시험에 합격했다. 티베트 불교계의 남녀출가자 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진 좌, 우는 베이징 윈쥐쓰에서 열린 불교음악회의 모습이다. 사진출처=TMO뉴스

中 천년고찰, 가을음악에 빠지다

제5회 베이징 윈쥐쓰 불교음악회 개최

중국불교계와 음악계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불교음악회가 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윈쥐쓰(雲居寺) 불교음악회가 지난 9월 22일 개최됐다고 중국의 ‘TOM 뉴스’가 전했다.

윈쥐쓰는 7세기 초 수나라 때 세워진 고찰로, 불교학계에선 팡산석경(房山石經)이라는 석각 대장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1981년 대장경이 모셔진 동굴에서 진신사리가 담긴 사리함이 발굴된 중국불교의 중요한 성지다.

윈쥐쓰 불교음악회 측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발전시키고, 윈쥐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매년 가을경에 열리는 불교음악회는 불교를 모티브로 한 고전,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와 현대음악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추절 연휴(한국의 추석)에 맞춰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윈쥐쓰 경내에 가설된 특별무대에서 진행됐다. 총 3막으로 구성된 음악회는 1막에서 중국 전통음악, 2막에서 현대무용과 고전음악의 콜라보레이션, 3막에서 현대음악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연의 마지막은 출연자 전원과 윈쥐쓰의 스님들이 중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새롭게 전승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윈쥐쓰 측은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사찰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겠다”며 불교음악회를 매년 개최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